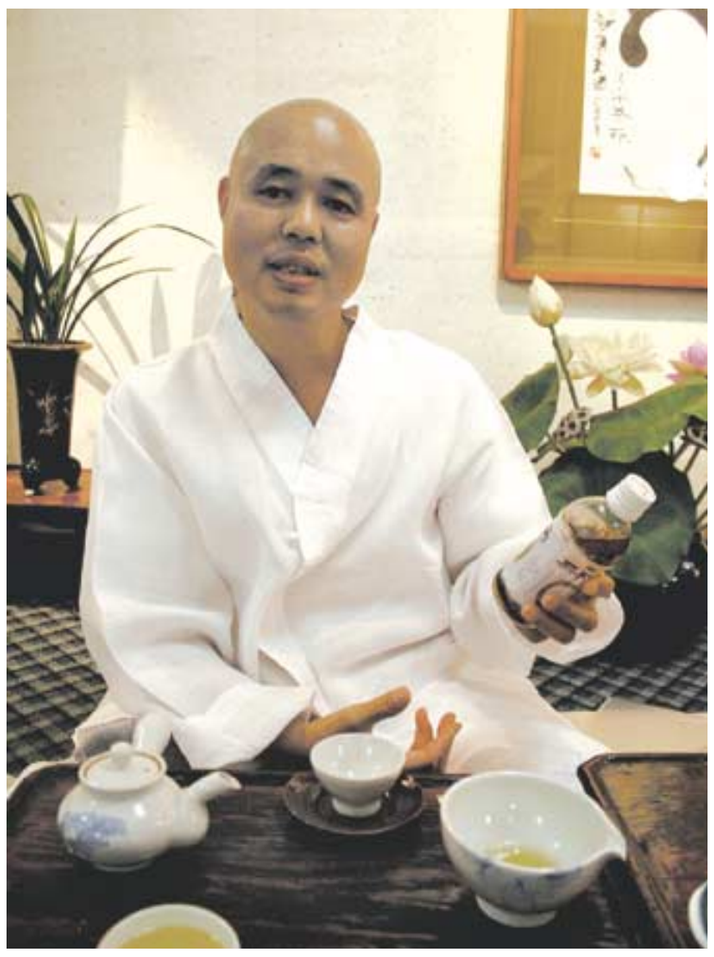
“좋은 제품은 포교에도 큰 힘”

구선 스님, 茶 전문회사 ‘청심연’ 설립



“불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차를 공급하는 일,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5월, 차 전문회사 ‘청심연’을 설립한 구선 스님(연화사 주지 · 사진).

9월 5일 조계사에서 만난 스님은 차 제품 개발과 유통을 통해 불자의 건강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수행에 매진해야 할 스님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은 바로 생업을 제쳐두고 절에 머물며 수행하는 젊은이들 때문이다. 경북 영양 연화사에서 ‘관(觀) 수련회’를 이끌던 스님은 한두 명씩 찾아오던 수련생이 40~50명을 넘어서자 이들과 같이 일할 터전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수행 · 생활공동체’를 일구자는 것이다.

다양한 유통회사를 구상하던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베트남산 보이차 10톤을 수입하게 됐고, 이를 이용한 차 음료 개발에 나섰다. 3년에 걸쳐 공장을 설립하고 보이차 엑기스 ‘제국의 아침’, 보이차 PT음료 ‘무소유’ 등을 개발한 후 지난 5월 ‘청심연’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보이차의 진위 여부와 제품의 청결도 등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시점에 관련 제품을 내놓는 일이 쉽지 않았다.

식약청 검사 마쳐 위생 문제없어
대형 할인매장 통한 유통망 확보
보이차 ‘무소유’ 대학가 시음회 인기

“일반인들에게는 보이차가 아직 낯선 존재고 불자와 차인들 사이에선 ‘알아도 속는 것이 보이차’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지요. 무엇보다 청결한 위생 상태를 확보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품질보증을 위해 베트남 국영기업에서 ‘야생차 증명서’를 발급받고 국내에 수입한 후 식약청에서 불순물과 잔류농약 검출 검사도 마쳤다.

제품이 출시되자 젊은 세대를 위해 대학가에서 시음회를 열고 등산객들에게 차를 나눠주며 보이차 알리기에 나섰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의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유통망 확보에도 나섰다.

하지만 정작 걸림돌이 된 것은 ‘종교색’이었다. 시음회에서 “무소유라는 제품명과 경전 문구가 너무 불교적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 한 매장에선 기독교인이 “왜 이런 종교 상품을 판매하느냐”며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삼육두유의 경우 성경 문구가 적혀 있어도 소비자들은 거부감 없이 구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심연에서 만드는 제품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제품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스레 전하는 포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업 초창기라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스님은 “앞으로 좋은 차를 공급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고집스럽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ww.chungsy.com (02)964-815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제다인 양성은 차 문화 초석 다지는 일”

목포과학대, 제다학과 신설

국내 최초로 전문 제다인을 양성하는 학과가 신설된다. 목포과학대학(학장 이호균 · 사진)은 2007학년도부터 2년 과정의 ‘제다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김억섭 겸임교수는 “21세기 웰빙 문화사회에서 차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다 기술과 마케팅 방법을 보다 체계적인 학문으로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전문 제다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제대로 된 차를 만드는 제다인을 양성하는 것은 바로 차 문화의 초석을 튼튼히 쌓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학과 커리큘럼 또한 차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차 산업 창업 지원 및 경영 능력 지도 마케팅 전략 연구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과 과정을 통해 재학 중 제다기능사 자격증 · 제품관리사 · 품종개량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졸업 후 제다업체를 창업하거나 차 제품 관리사 · 차 품종 개량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타 지역 학생에게는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성인반은 매 학기 100여만원 가량의 장학금도 지원된다. (061)270-2541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8. 신비의 음료

⑦ 커피의 상품화

각성과 지적음료로 인식되었던 커피에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세기 즈음이다. 커피 플랜테이션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커피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자유로운 음료가 됐다. 커피가 지식인이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마시던 사치품을 넘어 대중성을 갖추면서 노역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음료가 된 것이다. 또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부상하면서 밀수꾼과 수입업자, 투기꾼에게 커피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매력적인 곳으로 변하게 된다. 수입업자들은 커피가 배고픔을 없애 주는 영양식품이라고 선전하면서 정부에게 관세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가격 높이기 위해 펄 · 모카커피 등 상표 붙이기도
혼합커피는 산업 촉진 · 이윤 추구에 효자 품목

19세기에 유행하던 다양한 종류의 드립 포트.

초기의 커피 가격은 주로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됐다. 경매소에서 거래된 커피는 그 해의 작황이나 공급량과는 상관없이 풍문이나 투기꾼의 입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다. 그것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커피 상인들은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펄(pearl) 커피’ ‘모카커피’ 등 커피에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상표를 붙이기도 했다.

소매업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커피에 다른 것을 혼합하여 판매했는데, 그 결과 혼합된 형태의 커피가 생겨났다. 이를 계기로 커피 블렌딩이 그 당시 유행을 이끌었다. 그것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커피 생산을 가능케 했으며 커피 산업이 촉진되는 바탕이 되었다.

한편 룽게는 연구 끝에 1820년경 최초로 커피에서 각성성분을 추출하고 그것을 카페인(Caffeine)이라 명명했다. 몇 년 후인 1827년 영국인 오드리(Oudry)는 차(茶)에서 같은 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테인(Theine)이라고 명했으나 이것은 커피의 카페인과 동일한 성분으로 판명됐다. 커피와 차에 동일하게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은 인간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인류의 삶에 활력소가 되었다.

그러나 카페인이 불면증과 신경쇠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지면서 커피는 부정적인 음료로 인식되었고 마시는 것을 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다. 괴테는 커피를 즐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불면증을 카페인 탓으로 지적하고 아내에게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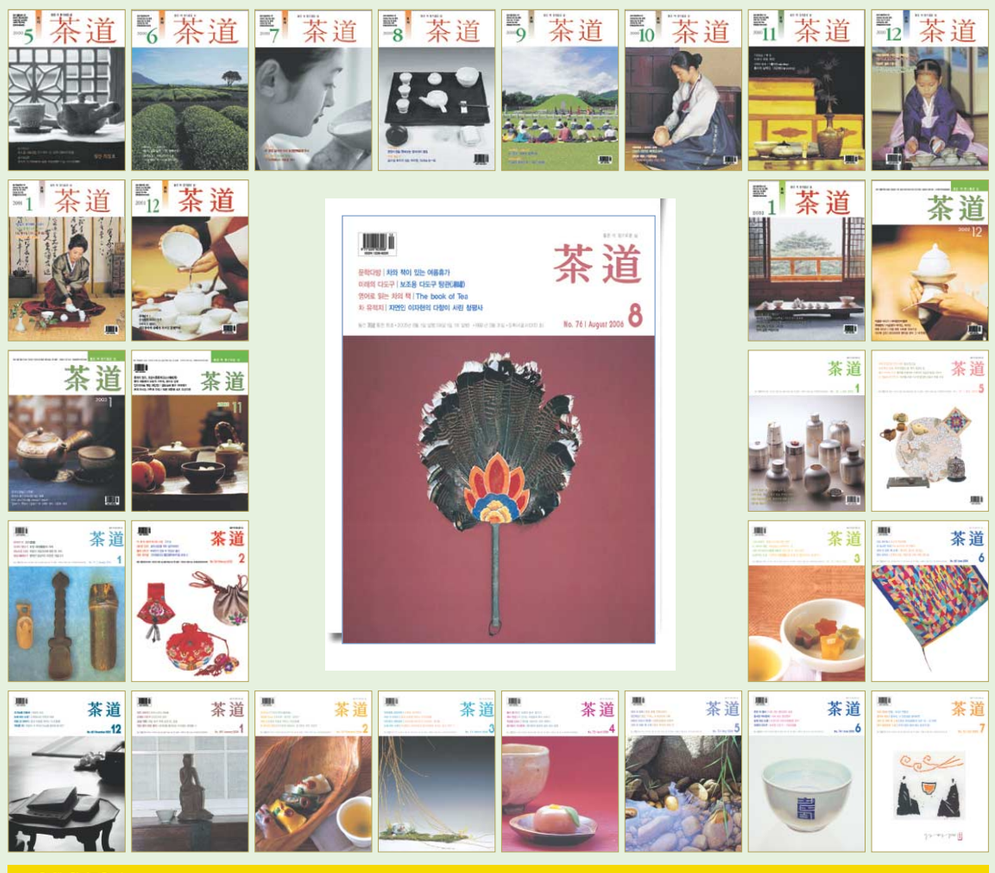
때문에 맛과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을 위해 아버지가 커피 감별사였던 브레멘의 커피상인 로젤리우스는 오랜 연구 끝에 커피의 풍미를 해치지 않고 커피콩에서 카페인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 1906년 부레멘의 한 공장에서 디 카페인 커피가 만들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었다.

반면에 19세기의 커피가 단순히 양적증가나 상품화 같이 이윤추구 모습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며 커피하우스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비엔나식 커피문화는 초승달 모양의 크로아상과 웨이터가 따라준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커피하우스 안에서 그들의 호칭은 부유한 손님에게는 귀족적인 호칭인 폰(von)으로, 지식인은 교수님이나 박사로 호칭하는 등 신분이 격상되었다. 단골들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명예훈장을 받는 커피하우스 주인들도 있었다. 커피하우스는 주택에 딸린 부속 건물처럼 블록 마다 있었고, 관청 옆에는 어김없이 있었다. 공적인 업무는 관청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인 사교나 교류는 커피하우스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커피 문화는 수년을 걸쳐 이어져 오늘날까지 그들의 삶속에 남아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www.webtbm.com
www.금강.net
할인에 서비스까지!! 지금이 기회
051)505-2434
[TBM 병술년 추석맞이 할인행사]
사찰신도관리 이제 손으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000여 사찰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금강장사를 사용해 보십시요.
가족중 한분의 이름만 알아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연말기부금증명서 출력은 물론 위패, 봉투, 등표, 인등표등 각종 양식이 인쇄가 되며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회계장부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은 축원관리, 인등관리, 불사관리, 행사관리, 재무관리, 생일관리, 49제기타 설법자료보관, 일정관리, 명함관리, 신수보기(토정비결), 우편물관리, 자체신도증발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종무행정의 최고봉 금강장사 할인 최고 30% !!
• 행사기간 : 2006. 8. 15 ~ 2006. 9. 30
※ 이번 행사는 TBM 3주년 행사입니다.
행사기획처인 TBM에서만 적용되는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강장사 사용자에 한해 행사 기간중 사주대전 풀버전을 10% 할인 합니다.
• 행사내용 (서비스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 30% 할인 (서비스없음)
※ 우편 판매 가능함 : 요청에 의해 1회 방문 가능
2. 10% 할인시 제공서비스
① 축원자료입력
②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③ 용지 3종세트
• 정상 구입시 제공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 KM1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주역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2. KM9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명리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금강장사 대한민국 최고봉 TBM
TBM 금강장사 051)505-24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효승 오피스텔 303호


좋은 책, 향기로운 삶
茶道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